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형 프랑수어권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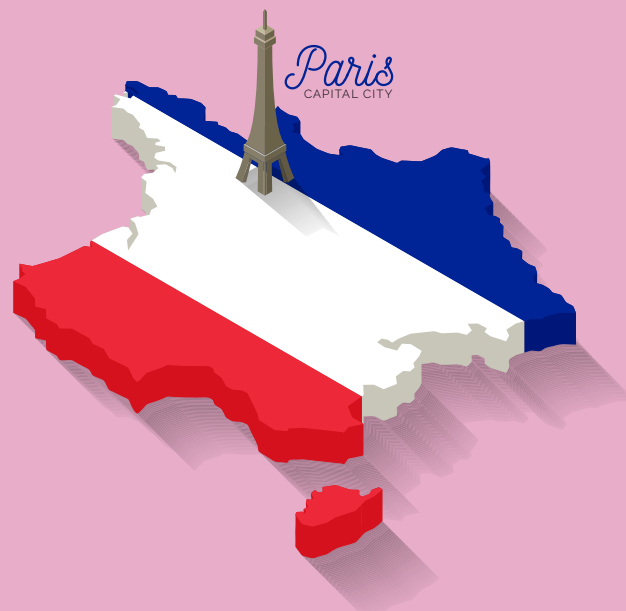
---

# 프랑스어학과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http://france.khu.ac.kr/>





---

## 영어와 함께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공용어

프랑스어는 약 3억 명의 화자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영어와 함께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공용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 캐나다 퀘벡과 북서부 아프리카, 인도양과 태평양의 도서 지역들이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국가들입니다. 프랑스어학과는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언어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갖춘 프랑스어권 지역 전문가 양성,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형 프랑스어권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적이고 국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학과 교육과정 혁신

6명의 한국인 교수와 2명의 프랑스인 교수로 구성된 프랑스어학과의 교수진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학과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교수진 모두는 프랑스의 명문대학에서 언어학, 기호학, 문학, 문화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 과목을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들은 모두 한국어에 능통해 동아리 활동을 돕고 진로상담도 해줍니다. 엄격한 학사과정과 졸업인증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교육부의 교육과정 혁신사업 예산 및 학과 장학기금을 활용해 우수 학생들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유기적으로 이원화되어, 1, 2학년은 언어집중과정을 통해 탁월한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갖추게 되고, 3, 4학년은 적성과 취업 비전을 연계해 트랙심화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트랙심화과정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역전문가 트랙, 프랑스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전문가 트랙, 순수인문학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학문심화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부터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와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

공'을 개설해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공학지식을 갖춘 글로벌 협상전문가와 통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중소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현장실습을 파견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프랑스어학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 초급프랑스어 1,2, 초급프랑스어회화1,2, 프랑스사회와문화 등
- 2학년 : 중급프랑스어1,2, 중급프랑스어회화1,2, DELF 1, 프랑스어 발음의이해, 프랑스동화읽기, 프랑코포니사회와문화, 프랑스어학의이해, 프랑스문학의이해, 프랑스에세이, 프랑스영상예술 등
- 3학년 : 고급프랑스어회화1,2, DELF 2, 프랑스언어와커뮤니케이션, 프랑스어글쓰기, 프랑스공연예술, 프랑스언어와사회, 프랑스시와상송, 프랑스소설, 공학프랑스어 등
- 4학년 : 현대프랑스사회, 프랑스문학특강, 프랑스문화콘텐츠, 프랑스어번역, 프랑스사상의이해, 비즈니스프랑스어, 미디어프랑스어, 프랑스문화탐구캡스톤디자인 등

## 유서 깊은 프랑스어학과 세 개의 동아리

프랑스어학과에는 유서 깊은 세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원어연극 동아리 '고도 GODOT'는 1985년에 창단되었고, 매년 동아리원들이 참여한 원어연극을 올리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에서 따온 이름처럼 GODOT는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향해 오늘도 열정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락 동아리 '라보엠 La Bohème'은 1985년에 만들어져 매해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축제 공연을 하고 있고, 라보엠은 방랑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특정 락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을 하자는 뜻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상소니에 Chansonniers' 역시 긴 세월 동안 프랑스어학과와 함께 해온 전통 있는 프랑스어 상송 동아리입니다. 상소니에는 상송을 작곡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프랑스 음악을 노래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동아리입니다.

## 프랑스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방향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프랑스어 구사능력과 프랑스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랑스 대사관 및 문화원, 한불상공회의소, 로레알·루이비통 그룹과 같은 프랑스 기반 글로벌 기업, 에어 프랑스·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 LG·현대·코오롱·CJ와 같은 대기업의 글로벌 사업부, 에스티 로더·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등에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사, 통번역 전문가, 언론인도 다수 배출하였고, 아프리카에서 통번역 및 사업을 하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다전공을 통해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된 졸업생도 많습니다.



###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프랑스어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프랑스어학과는 수시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학과에서는 초급프랑스어 문법과 회화 과정을 개설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 다전공은 활성화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주로 어느 분야를 다전공하는지?

학생의 적성과 취업 계획에 따라 다전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전공도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경영학과 복수전공이 많은 편이고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들, 국제학부, 호텔관광대학, 미디어학과 복수전공 학생들도 꾸준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과 같이 공과대학의 여러 전공들을 복수전공하는 융합 트렌드가 강세입니다.